

동호 이서의 생애와 한강학과 활동

장 인 진*

- I. 머리글
- II. 동호의 생애와 저술
 - 1. 생애
 - 2. 문집 검토
- III. 한강학과 활동
 - 1. 『한강선생문집』 간행
 - 2. 한강 예설 보완
 - 3. 남명 문묘 종사소
- IV. 마무리 글

국문초록

東湖 李穡(1566-1651)는 한강 정구의 문인 가운데서 주목되는 사람이다. 한강 사후 31년을 더 살면서 스승의 업적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였다.

동호의 문집에 나타난 작품은 총 71편으로 확인되는데, 그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남명 조식의 문묘 종사를 청한 상소문이다, 그러나 46년 연하의 전유장에게 준 장편 시에 대해서는 詩語의 사용, 당시 정치적 상황, 가문의 전통, 문집의 간행년도 등을 검토한 결과 『동호집』 편집·간행 당시에 고증을 잘못했거나 추입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 『동호집』에 누락된 ‘동계 정온에게 한 제문’을 『동계집』에서 발견하여 가치를 분석하였다.

* 한강학연구원 부원장 / injin0222@daum.net

동호의 寒岡學派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얻었다.

정구의 『한강집』은 1621년부터 이서를 비롯하여 박명윤, 이천봉, 배상룡 등이 문집 간행의 일을 의논하여 정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 직전에 초간본이 나왔는데 당시 문인 가운데서 원로였던 이서가 주도하고 배상룡이 실무를 주관하여 간행하였다. 문집 간행사업을 조금이라도 지체했다면 『한강집』이 후대에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었을 지 알 수 없는 일이다.

한강선생 禮說 보완에 대해서는 이서가 한강선생에게 올린 문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반 의례의 경우 사당과 관련 있는 것이 많았고, 천곡서원 충현사의 위패 봉안에 대한 문목에서는 禮를 행할 때 쓰는 頭巾 채택이 과제였다. 천곡서원에서는 程子冠을 썼는데 세간에 논란이 되었다. 성균관·향교와 영남 上道の 서원에서 두건을 썼던 것이다. 이 대목에서 상도·하도의 의례 차별성이 감지되고 있었다.

동호 이서는 1617년 7월 20일 한강선생을 모시고 봉산 욱행[목욕행차]에 참여하여 9월 5일 까지 선생을 따랐다. 「봉산욕행록」을 보면 이서에 대한 기록이 20회 나타난다. 그해 8월에 발의 된 남명 조식의 文廟 從祀를 청하는 상소에서는 이서가 상소문을 지었다. 그는 성리학자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이황, 조식 등을 6현[현인]으로 인식하고, 5현은 이미 문묘에 종사하였는데 조식이 빠진 것을 아쉽게 여겼다. 한강 정구가 젊은 시절에 남명 조식으로부터 敬과 義에 관한 가르침을 깊이 새겨듣고 실천하는 모습을 그가 평소에 지켜보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동호가 상소문을 지을 때 이러한 점을 주목했을 것이지만, 글에는 한강선생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어서 한강이 바로잡아서 완성한 것이라고 하겠다.

동호 이서는 한강선생의 고제자로서 명분 있는 일을 수행하여 한강의 업적을 후대에 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 주제어

정구, 한강집, 동호집, 동계집, 한강학과, 상소문, 문묘, 남명, 조식, 정은

I. 머리글

조선 시대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초로부터 불교를 배격하고 유학을 국시로 천명하였다. 일반적으로 조선초기의 유학자들은 대체로 도학 외에 문학 등에도 관심을 두고 있었다. 이 점은 조선 초기 사장과 서거정의 『필원잡기』, 성현의 『용재총화』 등에서 살필 수 있다. 그러나 조선중기 이후 유학자들은 송나라 周敦頤, 程頤, 朱熹 등 이학파가 강조한 문이재도의 道本文末의 논리를 중시했다고 하겠으니, 대표적 학자로 퇴계 이황을 꼽을 수 있다.¹⁾

16세기 후반 이후 예학·심학의 종장의 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사람은 鄭述(1543-1620)였다. 그의 자를 道可, 호를 寒岡이라고 하였는데, 학문 세계를 살펴보면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 외증조부 寒暄堂 金宏弼의 학문을 기반으로 하여 退溪 李滉과 南冥 曹植의 학문을 계승하였으나, 退溪의 학통을 우위로 삼았음을 「한강언행록」을 통하여 확인된다. 한강 정구는 영남의 성주지역을 포함한 대구 인근 즉 낙동강 중류 지역을 중심으로 예학, 심학 등을 주도하여 전국으로 확산을 시켰다. 한편 근기 지역에서는 眉叟 許穆을 통하여 星湖 李瀾, 茶山 丁若鏞으로 계승되는 실학을 발전시켰다.

한강의 문인에 대하여 崔性郁이 편한 『檜淵及門諸賢錄』(1974년)을 살펴보면 문인으로 등재된 사람이 342명이다. 그 후로 한강학연구원에서 계속 증보하여 현재 문인의 수는 400명이 넘는다.²⁾ 한강의 위상이 높았음과 아울러 한강학파의 인적 규모가 매우 폭넓다 뜻이다. 한강을 중심으로 한 학파는 洛中 지역을 기반으로 삼았으므로 현재 학계에서는 洛中學으로 설정하여 연구하고 있으며,³⁾ 江岸學으로 시각을 넓혀서 연구

1) 李滉, 『退溪先生文集』(목판본), 卷2에 “『주자대전』을 보니 陸放翁[游]의 사람됨을 여러 차례 칭찬하고 있는데 방옹은 끝내 한 번 내방하여 道를 물었다는 것을 아직 듣지 못하였으므로 감회가 있어서 시를 짓는다[觀朱子大全書 亟稱陸放翁之爲人 放翁終未聞一來問道 有感而作].라는 말이 있다.

2) 한강학연구원 편, 『한강학과 석담 이운우』[주제발표집](2022.11.26.), 133-141쪽.

를 진행하고 있다.⁴⁾

한강 정구의 주요문인⁵⁾에 대한 연구는 그간에 몇 편 나왔다. 李潤雨의 경우 ‘사승과 교유’, ‘한강학과 기반조성’, ‘삶과 학문 성향’, ‘봉산육행록’ 연구 등이 있고, 李天培·李天封의 경우 ‘한강학 계승과 한강학파에서의 역할과 위상’, 李堉의 경우 ‘생애와 예학사상’, 裴尙龍의 경우 ‘生三事一의 삶’, 崔暉의 경우 ‘학문적 업적과 실용적 성격’ 및 ‘문학과 현실인식’, 孫處訥의 경우 ‘『모당일기』를 중심으로 한 연구’와 ‘시에 나타난 교유와 의미’, ‘수신지학과 의병·강학활동’ 등이 발표되었다.⁶⁾ 이 외에도 徐思遠을 포함한 몇몇 문인들에 대한 연구는 있었지만 논외로 한다.

본고는 정구의 한강학과와 관련 있는 것으로, 한강의 문인인 東湖 李籟(1566-1651)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서는 진천현감 李弘宇의 아들인데, 일찍이 한강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한강 정구는 동호 이서의 고모부가 된다.

동호 이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선행 연구가 없다. 따라서 그 가계를 검토한 후 혼반을 포함한 사족으로서의 기반을 살펴보고, 문집을 통하여 생애와 사우 간의 위상, 한강학과 활동 등을 구명해 볼 것이다.

본 연구가 완료되면 한강선생의 많은 문인 가운데서 동호 이서는 어떠한 분야에서 관심을 가졌고, 문인으로서는 어떠한 일을 하였으며, 그의 문집 작품에는 어떤 성격을 지녔고, 후대 한강학을 정립하는 데 어떤 업적을 창출하였는지 등이 도출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3) 홍원식 외, 『조선 중기의 낙중학, 한강 정구의 삶과 사상』, 계명대학교출판부, 2017. 및 홍원식 외, 『조선 후기 낙중학의 전개와 한려학과』, 계명대학교출판부, 2018. 등에서 확인된다.

4) 정우락 외, 『강안학이란 무엇인가』, 도서출판 역락, 2023, 11-156쪽.

5) 한강선생의 문집, 언행록, 오선생예설 등 편찬에 진력한 문인임

6) 이에 대한 문인별 주요 연구자로는 이윤우(정우락, 김학수, 장인진, 구본욱, 박동일), 이천배·이천봉(김학수), 이육(남재주), 배상룡(이세동), 최현(박인호), 손처눌(정재훈, 이미진, 최은주, 주계협) 등이다.

II. 동호의 생애와 저술

1. 생애

光山李氏의 시조는 李順인데⁷⁾ 고려 때 判閣에 이르렀다. 그 아들 李恒[李桓]은 同正이고, 그 아들 李林은 判官이며, 그 아들 李根生은 進士인데 이 사람이 경상도 고령의 입향조이다.

이근생은 목사 魚仲淵⁸⁾의 딸에게 장가들어 副司勇을 지낸 李萃를 낳았다. 이취는 성균관 司成을 지낸 창녕 거주 창녕인⁹⁾ 張繼弛(?-1477)¹⁰⁾의 딸에게 장가들어 李漢孫을 낳았는데 벼슬은 副司果이다. 이한손은 副司果를 지낸 전의인 李長植의 딸에게 장가들어 李樹를 낳았다.

이수(1510-1542)는 용모가 걸출하고 志氣가 넓고 컸는데 일찍이 서사 공부를 하였음에도 1537년 무과에 급제하니 여러 사람들이 王侯의 干城[방패와 성]으로 기약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權知 訓練院奉事로 부임하여 함포의 佐幕에서 33세로 졸하였다. 그는 舍人을 지낸 고성인 李佑¹¹⁾의 딸에게 장가들어 3남 2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李弘器(1531-1582), 李弘量(1531-1592), 李弘宇(1535-1594) 등이다. 딸들은 京山人 李忱과 청주인 寒岡 鄭述에게 시집갔다. 이홍우(1535-1594)는 진주인 姜漑¹²⁾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 李箚와 딸 節死娘 이씨¹³⁾를 낳

7) 본고에서 李順을 一世[上祖]로 표기한 것은 동호 李箚가 지은 ‘祖考[李樹] 碣文’과 ‘先考[李弘宇] 墓表’의 기록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李命禧 등편, 『光山李氏族譜』, 목활자본(1856)을 보면 始祖를 李靖(鄉貢進士)이라고 한 후 그 자손 여러 대를 표기하였다. 그리고 派祖로 李淑伯을 一世로, 李順을 二世로 표기하였다. 근래의 족보에는 弓裔王의 5대손 李宗金을 一世(시조)로 표기하고 있다.

8) 魚仲淵은 세종 때 密陽府使, 廣州牧使 등을 역임하였다.

9) 李命禧 등편, 앞의 책에는 長淵人으로 표기되어 있다.

10) 『昌寧縣邑誌』(필사본, 순조연간, 서울대규장각 소장,奎666-v.19), 「人物, 寓居」條에 “張繼弛：登第官至成均館司成，理學精博 有操行.”이라고 하였다.

11) 李佑는 좌의정을 지낸 容軒 李原(1368-1429)의 증손이다.

12) 姜漑는 姜文叔의 아들이고, 진사 姜訥의 손자이며, 한훤당 金宏弼의 외손이다.

13) 李氏는 19세 미혼녀로 임진란이 일어났을 때 왜적을 만나 죽음으로 항절하였다.

았다. 강개는 한훤당 金宏弼의 외손이다.

이서의 자는 以直이고 호는 東湖이며 본관은 光山인데, 시조 이순의 8대손이다. 1566년(명종 21)에 성주목의 加利縣 孤村里에서 출생하였다. 타고난 자질은 醇厚하였고 儀形은 단중하였으며 言論은 온순하였다. 소시에 한강 鄭述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동호가 당시를 회상하기를 “情은 慈父와 같았고 義는 엄한 스승이었으며, 총각 때부터 문하에서 灑掃를 하였다.”¹⁴⁾라고 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1592년 봄에 강원도 通川郡守로 재임하고 있던 한강선생을 찾아간 바 있다. 『동호선생문집』에 실려 있는 금강산 일대의 시 15수는 이즈음 고종 사촌 鄭樟[한강의 아들], 고종 매부 盧勝[한강 사위] 등 3명이 금강산 일대를 유람한 후 남긴 작품이다.

竹杖芒屨踏雪來
臨流休憩水中臺
一盃遙對層巒倒
滿眼山花向我開

대 지팡이에 짚신으로 눈길 밟아 와서
강물에 나아가 수중대에서 쉬었네.
한 잔술 마주하니 층층 산 어려 있고
눈 가득한 꽃송이는 나를 향해 피었네.¹⁵⁾

峯嶽奇峯聳九天
俯臨滄海一深淵
如今又見仙禽下
恍若身登羽化然

높디높은 기봉이 구천에 솟아있고
창해를 굽어보니 하나의 깊은 못이네.
지금 또 보니 학이 내려온 것 같아
황연히 이 몸 올라 날개가 난 듯하네.¹⁶⁾

세 사람이 금강산 일대를 유람하던 중에 지은 것인데, 앞의 시는 동호가 石臺에 올라가 읊은 것이고, 뒤의 시는 表訓寺에 이르러 읊은 것이다. 금강산의 절경에 취하여 감탄하고 있다.

이처럼 자연과 벗을 삼다가 바로 성주에 내려와서 1592년 9월에는

14) 李籟, 『東湖集』(한국문집총간), 권1, 「寒岡鄭先生挽」, “情同慈父義嚴師, 灑掃門牆卅角時.”

15) 앞의 책, 권1, 「登石臺遂占一絕」

16) 앞의 책, 권1, 「至表訓寺口占」

의병에 참여하고 있던 아버지를 만나기도 했다.

9월 17일 이른 아침, 右監司[金睟]와 德凝[朴惺]이 무사히 강을 건넜다. 元靜[郭趕] 형은 사행을 따라 왔다. 李秀才 籓[당시 27세]도 같이 돌아왔다. 그의 아버지가 난리 중에 그 아들의 생사를 알지 못하여 늘 근심하며 번민하였는데, 갑자기 서로 만나니 그 기쁘고 다행스러움이 어떠하였겠는가.¹⁷⁾

전쟁 중이던 1593년에 모친상을 당하였고, 이듬해 부친상을 당했는데 난리 중에서도 애훼하며 상제를 마쳤다. 1597년에는 수원부사인 장인 朴而章을 찾아간 바 있으며, 1605년(선조 38) 진사시에 2등 12위로 입격한 뒤 1608년 遺逸로 천거되어 이듬해 황산 찰방에 잠시 재직하였다. 이어 스승 한강이 권신의 배척을 받아 향리로 돌아가자, 그도 벼슬에 뜻을 버리고 성주에서 스승과 함께 학문을 강론하였다. 1609년 한강선생의 명을 받아서 송나라 유학자들의 예설을 담은 「五先生禮說」을 重編하였다.

1612년 정월에는 한강이 蘆谷으로 거처를 옮겨서 精舍를 짓고자 할 때, 그와 裴仲夫[字]·張顯道가 제반 진행을 담당하였다.¹⁸⁾ 1614년에 노곡정사에 불이 나서 많은 책이 불탔을 때 「오선생예설」의 재편을 위해 노력하였고, 1617년 2월에는 泗濱書齋에서 食記案을 만들어서 첫 번째로 이름을 올리고 스승과 함께 강학을 하였으며,¹⁹⁾ 그 해 7월 선생을 모시고 봉산육행에 참여하였고, 8월에는 남명 조식을 文廟에 從祀할 것을 청한 상소문을 지었다.

1619년에는 동호가 泗陽에서 많은 선비들과 함께 성주 延鳳村에 우

17) 郭趕, 『禮谷先生文集』(목판본, 1811), 卷上, 「八溪日記」, 壬辰九月, “十七日早朝, 右監司與德凝無事渡江, 元靜兄隨使行而來, 李秀才籓亦同還, 渠之父亂離中, 不知厥子之存沒, 每懷憂悶, 忽得相值, 其爲欣幸如何也.”

18) 정구, 『한강집』(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부록, 「한강언행록」, 권3, 잡기 참조. 여기서 「한강언행록」은 본래 목판본으로 간행된 단독 저서인데, 본 DB에서는 합본 처리하였다.

19) 장인진, 「식담 이운우의 한강학과 기반 조성」, 『영남학』 84,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3, 253쪽.

거해 있던 장인인 용담 박이장을 찾아가서 배알하니, 용담이 그의 제자들에게 향음주례를 함께 행하도록 하였다.²⁰⁾

1620년 1월 5일 한강선생이 별세하니, 그를 포함하여 李天封, 李潤雨 등 3명이 임종을 지켰으며, 별세한 지 4일 후에 여헌 장현광에게 청하여 都護喪을 맡게 하고, 그와 李厚慶·李天封·李潤雨·李濯 등 5명은 호상이 되었으며, 成辦奎는 집례가 되어 장례 일을 처리하였다. 그리고 그는 심상 3년을 하였다.

1620년 7월에는 불행하게도 상주 鄭惟熙가 22세로 죽으니 동호가 제문을 지어 애도하였다.

오호 애재라, 사람으로서 누구나 한번은 죽지 않을까만 죽는 데 누가 우리 賢姪과 같은 죽음이 있겠는가. 나이 겨우 약관에 문득 영영 가고 말았으니, 당상의 偏親은 기절했다가 다시 소생하고, 규중의 과부는 외로이 의탁할 데가 없으니 하물며 선생의 畱連을 맡을 祭主가 없어 善을 하면 福을 주어야 할 天道가 어찌 그리 아득하기만 한가. 그대의 선부군을 잊고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선생을 곡하고, 선생을 곡한 눈물이 아직 마르지도 아니해서 또 우리 그대를 곡하여, 칠년 동안 연이어 三世를 곡하게 되니, 슬픈 정에 창자가 찢기는 것 같고, 긴 아픔에 숨이 끊어질 것 같구나. 오호 애재라.²¹⁾

한강선생 상중에 불행이 겹친 안타까운 일로써 畱連에 주인이 없는 아득함과 상가의 비통한 정경을 사실감 있게 표현하여 애통함을 더하고 있다.

1622년 회연서원을 창건하여²²⁾ 한강선생 위판을 봉안하였고, 1623년

20) 朴而章, 『龍潭集』(한국문집총간), 권5, 「年譜」, 四十七年己未 杓, “李東湖簪, 自泗陽與多士來謁, 先生使門生共行鄉飲禮.”

21) 李簪, 앞의 책, 권1, 「祭鄭休菴惟熙文」, “嗚呼哀哉, 人孰不一死, 死孰如吾賢姪之死乎, 年纔弱冠, 遽忽長休 堂上偏親, 絕而復甦, 閨中孀婦, 孑子無託, 況復先生几筵, 主器無人, 福善天道, 一何茫茫, 哭君之先府, 曾未幾時, 而又哭先生, 哭先生之, 淚尚未乾, 而又哭吾君, 七年之內, 連哭三世, 悲情如割, 長痛欲絕, 嗚呼哀哉.”

22) 裴尙龍, 『藤庵集』(한국문집총간), 권수, 「연보」, 1622년, “冬與崔竹軒及李東湖·李白川·李心遠·朴槎翁及同門諸賢, 會百梅園, 創建先師書院于檜淵.”

천곡서원에 한강선생을 從祀하였으며,²³⁾ 1624년 여헌 장현광에게 한강 선생의 행장 및 한훤당선생의 신도비명을 부탁하였다.²⁴⁾ 1626년 사축서 별제가 되었고, 이듬해 정묘년에 임금을 扈從한 공으로 6품이 되었으나 병으로 사양하고 고향에 돌아 왔다. 얼마 되지 않아 활인서 별제에 제수되고, 1628에 의금부 도사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만년에 承湖 가[지금의 달성군 논공읍 삼리1리 석실마을]에 집을 짓고 東湖野老라 자호하고 후진 교육에 힘썼는데, 이즈음 從姪 李光彦(1620-1698)에게 경계한 말이 있다.

네가 儒者가 되고 싶은가? 내 일찍이 初學者의 도를 들었는데,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하니, 말이 많으면 실상이 없다. 재주를 믿지 말아야 하니, 재주를 믿으면 교만하기 쉽다. 사치를 좋아하지 말아야 하니, 사치를 좋아하면 마음이 견고하지 않다. 높은 담론을 하지 말아야 하니, 높은 담론을 하면 단계를 뛰어넘음이 많다.”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배움은 편안하고 일정하며 고요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하고, 業은 부지런하고 애써서 하지 않으면 정밀하지 못하니, 단지 학문에 뜻을 두고 서도 다잡아서 하지 않으면 결코 성취될 리가 없다.”²⁵⁾

처음으로 배우는 종질에게 학문하는 자세를 말한 것인데, 즉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자신의 재주를 믿지 말며, 사치를 배격하고, 높은 담론을 하지 말 것 등을 경계하고, 학문에 더욱 심력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시기에 스승의 『寒岡先生言行錄』을 편집하였고, 1636년 「寒岡先生文集」 편찬을 주도하고 간행에 참여하였다. 1650년에는 시집간 딸이 종기가 매우 심하여 고생한데 대해 애타는 심경을 사위 許積에게 전하기

23) 1623년 가을에 성주 고을의 李箬를 포함한 사람이 한강 정구를 천곡서원에 배향해 주도록 경상감사[閔聖徽]에게 글을 올렸는데, 당시 청원의 주체는 성주 사람이지만, 경상감사에게 올린 글은 석담 이윤우가 사림을 대신하여 지었다. 이에 대해서는 장인진, 앞의 논문, 「석담 이윤우의 한강학파 기반 조성」, 246쪽 참조.

24) 張顯光, 『旅軒續集』(한국문집총간), 권2, 「李以直에게 답함」

25) 李箬, 앞의 책, 권3, 부록, 「家狀」, “汝欲爲儒乎, 吾嘗聞初學之道矣, 勿多言, 多言無實, 勿恃才, 恃才多驕, 勿好侈, 好侈心不固, 勿高論, 高論多躐等, 又曰學非安靜不成, 業非勤苦不精, 徒以學業爲意, 而悠悠泛泛者, 決無成就之理矣.” 이 家狀에 대하여 내용을 살펴보니 李光彦이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도 했다.²⁶⁾ 같은 해 85세 때 老人職으로 절충장군 호군이 되었다. 1651년 향년 86세로 별세하니, 문인들이 私諡하기를 德耀²⁷⁾ 선생이라고 하였다.

2. 문집 검토

동호의 저술을 보면 『東湖先生文集』 3권 2책을 남겼다. 남긴 글이 많았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중간에 많이 유실되었다고 본다. 이 문집은 6대손 李復運이 편집하여 입재 鄭宗魯(1738-1816)에게 서문을 받았으나 바로 간행하지 못하였고, 서문 받은 지 30년 정도 지나서 李燮運이 정재 柳致明(1777-1861)의 서문을 받아서 헌종연간에 간행하였다.

문집에는 詩(38), 疏(1), 書(15), 祝文(1), 祭文(10), 碣文(1), 墓表(1), 墓誌銘(1), 雜著(3) 등으로 구성되어 동호의 작품은 총 71편이다.

입재 정종로는 『동호집』에 대해 이렇게 평하였다.

지금 그의 유집에 실린 것을 보건대 경천동지할 언론과 무리들보다 우뚝이 빼어난 업적은 별도로 없고 평소의 말과 행위도 다만 평소 생활하는 사이의 民彝物則[사람의 뜻뜻한 도리와 사물의 법칙]뿐이었으니, 비록 노둔하고 질박한 사람이라고 말하더라도 괜찮을 것이다. 그러나 한강 정 선생이 인도하여 문하에 두고 찬찬히 가르친 바가 있었으니, 그 반드시 독실하게 자신을 수양하는 학문에 나아가 세상에 이로움이 있었기 때문이다.²⁸⁾

26) 앞의 책, 권1, 「與女婿許相君積」, “女息時服何藥而腫核自消耶, 有濃破之漸耶, 濃破則難救, 憂煎慈念, 令可想耶.” 한편 허적이 영의정에 이르렀기 때문에 ‘相君’이라고 지칭하였는데 당시 허적은 평안감사였다. 「監司」라고 해야 맞는다.

27) 鄭宗魯, 『立齋集』(한국문집총간), 권35, 「副護軍東湖李公墓碣銘」, “門人私諡曰德耀, 盖取靖節貞耀之義云.”이라고 하여, 德耀는 陶靖節의 貞耀의 뜻을 취했음을 알 수 있다. 靖節은 진나라 陶潛을 일컫는 말인데 세상 사람들이 靖節선생이라고 하였다.

28) 앞의 책, 권28, 「東湖集序」, “今觀其遺集所載, 別無驚天動地之言論, 出類拔萃之事業, 平居云爲, 只日用間民彝物則而已, 則雖謂之魯鈍朴茂之人可矣, 然寒岡鄭先生引而置之於門, 循循然有所訓誨, 則其必可進於篤實爲己之學, 而有益於世故也.”

입재 정종로는 동호를 노둔하고 질박할 사람으로 인식하였다. 옛말에 “덕을 이룬 사람은 魯鈍한 것 같고, 덕을 그르친 사람은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과장한다.”²⁹⁾라고 하였으니, 노둔과 질박은 좋은 말이다. 그리고 한강선생의 가르침으로 인해 독실이 자신을 수양하는 학문을 하여 세상에 이로움이 있었다고 했다. 이 점은 爲己之學을 하여 세상에 이로움을 준 글이 문집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시 가운데 짚어 봐야 할 부분이 있으니, 全有章(1612-1675)에게 준 7言詩 59韻(826자)의 장편 1수이다.

許我風味乃相思
白雪陽春和一曲
要知肝膽酒中露
自擬平生心莫逆

六龍悲疼返舊淵
旋旆無光日色薄
聞君經院闕秘寶
夜焚清油繼餘旭
僕臥空罍地藏寺
碧洞花開春寂寞
吾君手札適復至
語高還煩三四讀

相思相見政何日
此時此日愁纏臆³²⁾

나에게 풍모를 허락하여 서로 그리워하며
백설과 양춘³⁰⁾의 곡으로 화답했네.
간담은 술자리에서 드리남을 알았으니
평생 마음으로 막역했음을 자부하였네.

-중략-

임금께서 초췌하게 궁궐 돌아오니
그 깃발 빛을 잃어 보잘 것 없네.
그대는 경원³¹⁾에서 비장해둔 책 열람하며
맑은 기름 태우며 밤을 지낸다고 들었네.
이 몸은 조용한 지장사에 누웠으나
절간이라 꽃 피어도 봄이 적적하도다.
그대의 편지 거듭 부쳐 와서
뜻이 높아 반복하여 서너 번이나 읽었네.

-중략-

서로 그리워하다가 어느 날에나 다시 볼까,
이때 이날의 수심 가슴에 얹힌 듯하네.

29) 崔漢綺, 『氣測體義』(한국고전종합DB), 권5, 「推己測人」, “成德之人若魯鈍, 敗德之人誇智能.”

30) 白雪과 陽春은 전국 시대 楚나라의 歌曲 이름인데, 너무도 고상하여 따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적었다는 기록이 초나라 시인 宋玉의 「對楚王問」에 보인다.

31) 『中文大辭典』(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5)에 의하면 經院은 ‘古人의 講經之所’를 일컫는다.

32) 李裕元 편, 『林下筆記』(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권33, 「華東玉粼編」, 諸詩體의 “三五七言詩는, 李白의 가을바람 맑고, 가을 달이 밝도다. 낙엽은 모였다가 다시

荒詞一篇寄君邊
照我中心情萬斛

거칠은 시 한 편을 그대 곁에 보내고
내 마음 속에 비추니 정이 일만 섬[萬斛]이었네.

詩題를 「정봉 전유장에게(與全正峯有章)」³³⁾라고 했으므로 주제가 명료하지 못하다. 그리고 앞의 구절은 자신의 심정을 진솔하게 표현한 것인데 전유장과는 막역한知己가 됨을 상징하고 있다. 중간 구절에서는 동호가 1636년 병자호란을 겪은 직후에 지은 것임을 알 수 있어서 이때가 동호의 나이 71세, 전유장의 나이 25세가 되는 시점이다. 나이 차이가 무려 46년이니, ‘막역한 벗’으로 보기 어렵다. 뒤의 구절은 서로 그리워하는 심정을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전유장의 字는 汝煥인데 49세가 되던 1660년 進士에 입격하였으며, 金長生의 문인이고 宋時烈과는 동문으로서 교분이 매우 좋았다. 이 시에서는 전유장이 동호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낸 것을 알 수 있는데, 전유장의 『正峯先生文集』을 통 털어 보아도 동호에게 보낸 편지는 고사하고 교유한 흔적이 없으며,³⁴⁾ 특별히 두 집안과 혈연관계도 보이지 않는다. 집안의 가통을 살펴보면 동호의 집안은 전통 남인이고, 전유장의 집안은 전통 노론이므로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 『동호선생문집』이 사후

흘어지고, 까마귀는 깃들었다가 다시 놀라도다. 서로 사모하는데 보는 것 그 어느 날일까 이날 이때의 심정은 참으로 가누기가 어려워라[秋風清, 秋月明, 落葉聚還散, 寒鴉棲復驚, 相思相見知何日, 此日此時難爲情.]”이라 하였는데, 이 시의 영향을 받고 시구를 원용한 것 같다.

33) 詩題를 「與全正峯有章」으로 표기하였다. 일반적으로 남에게 보내는 글은 동격일 때는 ‘與○○’로 표기하고 3~40여년 연하 사람에게는 ‘寄○○’로 표기하는 것이며, 號 보다는 字를 표기하는 것이다.

34) 全有章의 『正峯先生文集』(목활자본), 권2, 「正峯先生年譜」를 보면 그가 1631년(20세) 仲氏 全有慶과 함께 김강생의 문인이 되었고, 송시열 등과 동문수학하며 서로 講討한 적이 있으며, 1666년 孝廟服制辨誣疏의 疏首로서 柳世哲, 李元禎 등과 대립하였고, 1667년 李珥와 成渾을 문묘에 배향하도록 상소 올릴 때도 疏首로서 陳奏使로 다녀온 許積을 비판하였다. 이처럼 한강학과를 위해 활동한 동호의 의식과는 인식차가 매우 크다. 한편 1994년 全柄用 등이 발행한 『沃川全氏杏亭世蹟』(書簡文影印本)은 正峯 당대로부터 간찰을 모아둔 것인데, 주로 송시열 및 그 학통의 사람들과 주고받은 편지이다. 이 책에서는 동호와 문자 왕래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200년 지나서 간행한 점을 감안하면, 동호가 타인에게 준 것을 편집할 당시에 성명·字·號의 고증을 잘못했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간행할 당시에 철저한 고증 없이 追入한 것인지도 알 수 없다.³⁵⁾ 조선시대 문집을 검토해보면 다른 사람의 글이 잘못 들어온 경우가 있다.³⁶⁾

동호의 나머지 시를 살펴보면 한강선생을 모시고 蓬山[東來]에 육행할 당시의 시, 관동의 금강산을 유람할 때 지은 시를 포함하여 증시, 만사 등이다. 만사는 19편인데 18편이 사우와 관련 있는 것이다. 내용을 보면 同道意識, 同門으로서의 추억, 世誼와 交分, 인품과 업적 살아남은 자의 허무감 등이 들어 있다. 한편 제문의 경우 『동호집』에 10편이 있는데 7편은 만사를 쓴 대상자에게 쓴 것이고, 나머지 3편은 동문인 朴明胤·李命龍, 한강 손자 鄭惟熙에게 쓴 것이다.

동호 이서의 작품이 『동호집』에는 없으나, 鄭蘊의 『桐溪集』의 「續集」 부록에 실린 글이 발견된다. 이 글은 1641년 동호 이서가 동계 정온에게 드린 제문이다.

아, 슬프도다. 선생께서는 순강하고 정직한 기운을 품부 받아 世道가 실추된 시대에 태어나시어 강상을 부지하고 倫紀를 바로잡는 일로 자신의 소임을 삼았습시다. 혼란한 조정을 만나 강상이 뒤집히고 윤기가 끓어졌으나 상하가 두려워하고 대소가 입을 다물어 한 사람도 우뚝 나서서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유독 우리 선생만이 威武가 위에 임해 있으나 그 지조를 변치 않았고, 형틀이 앞에 설치되어 있으나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후로 올린 상소문은 추상처럼 늪름하였고, 당당하고 정직한 기운과 열렬하고 분발한 말은 바로 일월과 더불어 그 빛을 다룰 정도였지만, 충성스러운 말이 귀를 거슬러서 도리어 원수로 여겼기에 10년 동안 해도에 유배되어 대궐에서 천 리 밖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 만년에 이르러서는 사업이 더욱 빛나서 청사를 비추고 중화를 용동시켰습니다.

선생의 충절로 말하면 옛사람에게서 구하더라도 또한 많지 않을 것이니, 참으로 이른바 세상에 보기 드문 호걸이고 큰 물결의 지주라고 할 것입니다. 어리석고

35) 일반적으로 문집 편집자가 편성을 완료하면 서문을 쓸 사람에게 원고를 보내어 감수토록 하는 데, 『동호집』의 鄭宗魯·柳致明의 序文에는 무려 59韻(826자)이나 되는 이 시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다.

36) 장인진, 『영남문집의 출판과 문헌학적 양상』, 계명대출판부, 2011, 119-121쪽.

못난 나는 일찍이 지우를 입었고, 만년에 다시 사돈 사이가 되어³⁷⁾ 정의가 더욱 두터웠습니다. 비록 끊이지 않고 상종하는 것은 못했지만 구구한 제가 경양하는 마음은 하늘의 星斗를 바라봄과 같았더니, 어찌 오늘 갑자기 의귀할 곳을 잃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선생이 돌아가신 뒤로 우리의 도가 더욱 외로워지고 나라가 날로 병들어 가니, 私情을 위해 통곡하고 公事를 위해 통곡하느라 가슴을 적시는 눈물을 금할 수 없습니다.³⁸⁾

광해연간의 대북정권 혼란한 시기에 보인 동계 정온의 정직·지조가 있는 심성과 충절·호걸스러운 모습을 사실감 있게 표현하였으니, 마치 동계 行狀의 一端을 접하는 듯하다. 동계의 위대한 행적을 후대에 귀감이 되도록 역할을 한 것이다.

제문에 언급한 ‘사돈 사이’는 庶子女로 인한 사돈 간인데 정의가 더욱 두터웠다고 표현하였다. 이런 표현은 신분제가 존재하던 조선시대 정서상 매우 드문 일이 되는데, 이를 언급한 것은 嫡庶를 차별하지 않는 의식이 있었다고 본다. 이 글이 『동호집』에 수록되지 않았는데, 가령 1800년대 중반에 『동호집』을 간행할 때 이 글이 있었는데도 삭제했다면 아마도 이러한 부정적 정서가 작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간행된 정온의 『동계집』에는 동호의 제문이 실려 있다.³⁹⁾

Ⅲ. 한강학과 활동

동호 이서는 문인 가운데서 長壽를 하였다, 한강 별세 후 31년을 더 살았기에 많은 일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李之馨은 “당시 학문의 眞訣을 공이 능히 받아서, 만년에 배우는 못사람들이 오히려 의지할 곳 있었

37) 동계 정온의 庶子 鄭昌謹이 東湖의 庶女에게 장가들어 4녀를 낳았다고 한다.

38) 鄭蘊, 『桐溪集』(한국문집총간), 「續集」(1852년 간행) 권2, 「士林祭文」.

39) 동계 정온의 사후에 많은 제문이 들어 왔을 것이다. 동계 가문에서 이를 선정하여 문집에 실었다면 내용이 좋았다는 뜻도 되지만, 한편으로 情誼를 중시한 면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네.”⁴⁰⁾라고 하였으니, 동호는 한강선생의 학문의 진결을 받아서 그가 별세할 때까지 후학들에게 전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심원당 李堉의 「師友錄」에 다음의 말이 있다.

선생[한강]이 별세하자 공이 수제자로서 굳건히 홀로 견지하고서는 무릇 경영하는 일에 일 푼 일 리라도 법도가 있어서 마침내 후회 없게 이루었다. 서원을 창건하고 신도비를 세우며 문집을 간행하는 일에 더욱 성력을 다하지 않음이 없었다. 선생 별세함에 심상 삼년을 입었으니, 문하 제자의 어질 가운데서도 이보다 나은 사람이 없었고 덕량과 풍모는 공에게 미치는 자가 없었다.⁴¹⁾

한강의 수제자로서 경영하는 일에 법도가 있었으며, 회연서원 창건, 한강선생 신도비 건립, 한강선생 문집 간행 등에 성력을 다하였고 선생이 별세하자 心喪으로 3년을 마쳤다. 제자 가운데서도 어진 성품에 덕량과 풍모가 매우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위상이 높았다는 뜻이다.

동호가 이룩한 한강선생 관련 글을 살펴보기로 한다.

「寒岡先生文集序」, 「寒岡先生遺事」, 「寒岡先生言行錄」, 「上寒岡鄭先生」, 「上寒岡鄭先生稟目」 및 「問目」, 「東岡金先生奉安檜淵時 告寒岡先生文」, 「寒岡鄭先生挽」, 「祭寒岡先生文」, 「祭寒岡先生文(代川谷儒生作)」

동호는 한강문인으로서 주요한 일을 주도하면서 주목되는 글을 남겼다. 사류 간에서도 명망이 있었음인지 천곡서원 유생을 대신하여 지은 제문도 남겼다. 이러한 일들을 수행한 이면에는 평소 선생으로부터 신임을 받았던 門人으로서 당연한 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본다.

한강이 동호에게 답한 서신을 살펴보면 당시의 士風이 확인된다.

40) 李籀, 앞의 책, 권3, 부록, 「察訪 李之馨 挽」, “當時學訣公能受, 末路群蒙尙有歸”

41) 앞의 책, 권3, 「哀錄」, 「李心遠堂師友錄」, “及先生之喪也, 公以首門下, 凝然獨持, 凡所營理之事, 分釐有紀, 終致無悔, 院宇之棚, 道碑之建, 文集之刊, 尤無所不致誠力, 先生之喪, 服心喪三年, 門下諸子之賢於斯爲盛, 而德量風儀, 無及於公者.”

요즘 선비의 기풍이 쇠퇴해진 정도가 막심하여 기질이 선량한 사람까지도 마냥 세월을 허송하며 집안 잡무에 빠져 있고 학문에 뜻을 둔 사람이 전혀 없네. 저번에 徐行甫[徐思遠]와 이 문제를 언급하고 함께 개탄해 마지않았다네. 이 또한 선배인 우리들의 죄이므로 부끄럽고 한스럽네. 요즘 통문 한 장을 돌려 조금이나마 학문에 뜻을 둔 만한 사람을 취합하여 이들과 함께 『근사록』을 通讀했으면 하는데, 이 생각이 어떠한가? 사람이 찾아오거든 주저하지 말고 가부간에 그대의 의견을 표시해 주기 바라네.⁴²⁾

이 글은 동호의 어떤 서신에 대한 한강선생의 답장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徐思遠의 생전이고 보면 1615년 이전이 되는데, 당시 선비들 간에 학문에 뜻을 둔 사람이 없음을 개탄하며 동호에게 『近思錄』 통독을 제안하고 있다. 학풍을 일으키고자 노력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동호에게 언급한 것을 보면 동호는 선생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문인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동호는 이 같은 학풍 해이 현상을 극복하며 한강의 업적을 창출한 것이다.

1. 『한강선생문집』 간행

한강 정구의 문집 편찬은 선생이 별세한 다음 해부터 시작하였다. 배상룡의 『藤庵集』의 「藤庵年譜」에 의하면 1621년 겨울에 동호 이서를 비롯하여 朴明胤, 崔恒慶, 李天封, 李堉, 裴尙龍 등이 회연서원의 百梅園에 모여서 한강선생 문집 校刊의 일을 의논하여 정하였다.⁴³⁾ 석담 이윤우의 『석담집』의 「실기」에서도 한강선생 장례 이후 泗上에 이르러 동문 제우들과 遺稿를 수집하는 등의 일을 요리했다고 한다.⁴⁴⁾

「등암연보」에는 한강선생 문집의 편찬과 간행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

42) 정구, 앞의 『한강집』, 별집 권1, 「이이직 서에게 답함」

43) 裴尙龍, 앞의 책, 「年譜」. “天啓元年(光海十三年)辛酉, 冬與李東湖·朴槎翁·崔竹軒恒慶·李白川·李心遠諸賢, 會于百梅園, 議定先師文集校刊事.”

44) 李潤雨, 『石潭集』(한국문집총간), 「實記」, “萬曆四十八年庚申四月, … 還到泗上, 與同門諸友, 料理收輯遺稿等事.”

는데, 간행연도를 1628년에 시작하여 이듬해 10월에 마친 것으로 표기한 것은 잘못이다.⁴⁵⁾

한강선생 문집 초간본은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간행되었다. 이 사실은 동호 이서와 등암 배상룡(1574-1655)이 주고받은 서신에서 확인된다.

동호 이서가 등암 배상룡에게 답한 서신을 본다.

지금 刊役하는 일이 한창 진행되는 때에 院任에서 물러나는 것이 극히 미안한 줄 알지만 스스로 기력을 헤아려 보면 오래 보전할 수 없고, 院中에도 원장이 처치한 일이 많으므로 부득이 글을 올려 청하였습니다. 이는 대개 형이 아니면 큰일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성명을 또한 都有司의 반열 끝에 追書한 것이니, 이는 公議에 불쾌하지는 않겠습니까. 늙고 병든 몸으로는 비록 자주 가서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오히려 편지를 통하여 상의할 수 있기 때문에 감히 有司의 말석에 이름을 붙인 것이니, 오직 형이 허물하지 않는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⁴⁶⁾

한강선생 문집을 간행할 즈음에 동호는 회연서원 원임에서 물러나고자 한 뜻을 내비치며 배상룡이 일을 맡아서 刊役을 성취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有司를 맡아서 서신으로 상의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이 때가 동호의 나이 71세의 고령임을 감안하면 납득이 된다.

이에 등암 배상룡이 동호에게 보낸 답서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다.

문집을 인쇄하여 반포하는 일이 매우 긴박한데 만약 이 때를 놓치게 되면 어떻

45) 배상룡의 「등암연보」를 보면 1628년 봄에 배상룡이 同門諸賢과 비로소 한강선생문집을 본원[회연서원]에서 刊役하면서 원장 崔竹軒이 校刊을 맡고 배상룡 자신이 이 일을 주관했다고 하였다. 『藤庵集』 초간본의 간행연도가 1859년임을 감안하면, 이 연대는 「등암연보」 편성 시에 잘못 기록한 것이다.

46) 李籟, 앞의 책, 권2, 「答裴藤菴(尙龍)」[병자:1636년], “當此刊役方張之日, 遞免院任, 極知未安, 而自度氣力, 不可保長久, 院中亦多院長處置之事, 不得已請狀書上, 蓋以非兄則不能成就大事故也. 賤姓名亦追書於都有司之列, 無乃不快公議乎, 老病之身, 雖未能源源來會, 而猶可簡通相議, 故敢此書名於有司之末, 惟兄之勿以爲罪, 千萬幸甚.”

게 널리 반포하겠습니까? 제 자식이 요사이 苞山[현풍]에 왕래할 계획이 있어 찾아뵙고 대신 전하려 합니다. 그 가는 길이 쉽지 않을 것 같으면 서원 원지기를 시켜서 급한 뜻을 알리려 합니다. 형이 만약 즐겨 승낙하지 않으시면 저도 다시는 斯文의 일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角峯에서 또 삼백 권의 종이를 도와주어 찍은 것이 거의 오·육십 권에 이르니, 또한 한 가지 다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⁴⁷⁾

등암 배상룡의 이 서신은 동호의 답장에 대한 의견으로 보인다. 등암이 간역 사업의 긴박성을 언급하며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등암 배상룡이 동호에게 다시 답한 서신을 보면 문집의 간행 작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발휘[心經發揮]』는 21板을 이미 찍었고 35판은 지금 찍고 있으니 이로 미루어 헤아리면 문집[한강집]은 20일 후에 시작되고 『심경발휘』는 그믐 전에 끝날 것입니다. 문집에 연보를 합하면 『심경발휘』에 2배반이 되니, 日數는 이로 좇아 헤아리겠고, 그 가운데 가장 걱정되는 것은 교감이 정밀하게 이루지 못해서 비록 인출되더라도 어찌 온전한 책이 될 수 있겠으며, 立番하는 여러 학자들이 전혀 유의하지 않고 억지로 교정하게 되면 범연히 읽어 내려가서 옳은 것은 적고 믿음이 없으니 어찌겠습니까? 문집을 전부 등사한 지가 여러 날이 되는데도 首卷의 詩篇을 아직 刪定하지 못한 까닭에 곧장 제 2권 疏筭, 附錄을 등사하고 있으나, 옛 형식에 얽매어 오로지 선후의 순서가 없으니 어찌 안목을 갖춘 사람의 옳고 그름의 책망이 없겠습니까? 더욱 한스러운 것은 처음부터 혹자의 의론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개 일이 되어 가는 형세가 대강 맞으면 두서가 잡힐 듯하나, 정미한 곳에 이르면 의논할 만한 것이 없으니, 걱정뿐이고, 큰 탄식뿐입니다. 또 책판을 새기는 장인들이 役事를 시작하는 데는 선후가 있는데 굵고 민첩함이 각각 같지 않은지라, 뒤에 것을 끝내지 못하고 앞의 것을 다시 시작하여 문집은 두어 달 뒤에 끝날 것 같고 연보는 응당 정월 초에 시작될 것이나 지금도 탈고를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 우려가 됩니다. 최 감사에게 보낼 책은 바로 謄抄하게 했으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초례를 치른 다음날에 바로 와서 가르쳐 줌으로서 선후의 문자에 대단한 착오가 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⁴⁸⁾

47) 裴尙龍, 앞의 책, 권2, 「答李東湖」, “文集印頒, 事甚緊急, 若失此時, 何能廣布乎, 迷兒近有往來苞山之計, 欲令歷拜而替達矣. 其行似未易, 茲倩院人, 以告急速之意, 兄若不肯領可, 則生亦更不言斯文事矣. 角峯亦助三百卷之紙, 所印幾至五六十件, 亦一幸也”

등암 배상룡은 동호보다 나이가 8세 아래였던 동문이었다. 그가 이처럼 동호에게 간행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때 동호는 한강 문인 가운데 원로로서 간역 도유사 같은 직책을 맡아서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이 분명하다.

『심경발휘』의 판각의 경우 일부는 이미 찍었고,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으며, 한강선생의 문집과 연보에 대해서는 판각의 일정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간행 시 校勘 문제, 刪定 문제, 刻手 문제 등 여러 가지로 애로 사항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서신에서 언급한 崔監司는 강원감사를 역임한 崔峴이다.

초간본이 간행될 당시의 상황은 이처럼 매우 열악하였다. 뒷날 李萬運(1736-1820)이 동호의 글 등을 읽고 쓴 『寒岡先生文集開刊事實』에서도 병자년(1636)에 호란의 조짐이 나타나자 문인 裴尙龍·李筭가 문집의 보전을 위하여 급박하게 謄寫하여 겨우 호란이 일어나기 전에 간행을 마쳤고, 그렇기 때문에 勘校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⁴⁹⁾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간역을 마친 후에 동호가 한강선생 문집의 序文을 짓게 된 것이다. 한강선생 문집의 서문 일부를 본다.

선생이 돌아가신 뒤 문인 등이 불에 탄 나머지를 주어모아서 사우들이 소장하였는데 십여 년간 힘들어서 약간의 책을 편성하였으나, 한때 함께 일하던 사람들

48) 앞의 책, 권2, 「答李東湖」, “發揮已刊二十板, 方刊三十五板, 推此以計, 則文集當始於念後 而發揮可畢於晦前矣. 文集合年譜, 居發揮二倍之半, 則日數從此可計, 而其中最切問者, 校勘不得致精 雖能刊出, 豈保爲完書哉, 立番諸儒, 專不留意, 強令讎校則泛然讀過, 少可倚信, 奈何奈何. 全生寫文集 今且數日, 而首卷詩篇, 時未刪定, 故徑寫第二疏筭附卷, 而泥於古式, 專無先後次第, 烏得無具眼者之雌黃乎, 益恨初來不從或人之議也. 大槩事勢粗處則若有頭緒, 而至於精微極盡之地則無可與擬議, 憂悶而已, 浩歎而已, 且匠人始役有先後, 鈍敏又各不同, 後者未畢, 先者更始, 文集似畢於數月之後, 年譜應始於正月之初, 而時未脫藁, 用是虞慮. 崔監司前所送之本, 卽令謄寫, 而迨未完畢耳. 唯冀過醺禮翌日 卽臨指教, 使傳後之文, 不至大段差誤.”

49) 李萬運, 『默軒集』(한국문집총간), 권6, 「寒岡先生文集開刊事實」, “李東湖寒岡文集序曰 … 云云. 裴藤庵李東湖兩賢, 猝始刊板, 急急謄寫, 而刊所立番諸儒, 全不留意, 取舍不精, 惟以速成爲務, 功纔告訖而兵火大作, 兩賢爲師門致勤篤之誠意至矣. 但恨文集諸書或有勘校未盡處, 以致後人之不諒當時事實而妄有議論, 誠可歎.”

이 서로 이어서 돌아갔고 살아서 세상에 있는 사람도 정력이 미치지 못하였기에 取捨가 精微하지 못하고 勘校가 완전하지 못한 채 상자 속에 던져두고 안목을 갖춘 사람의 편차를 기다렸으므로 감히 간행할 계획을 세우지 못하였다. 병자년 [1636] 가을에 문하생 裴公 相龍이 여러 동지와 상의하기를 “時事에 어려움이 많아 아침저녁으로 걱정이 되는데 선생의 문집이 아직도 세상에 나오지 않았으니, 불행하여 보존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조금 讎校를 가하여 세상에 널리 퍼서 뒤의 군자를 기다림만 같겠습니까.” 하고 이에 정성과 있는 힘을 다하여 서로 이어 자기의 소임으로 여겨 회연서원에서 役事를 경영함에, 많은 선비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한편으로 교정하면서 책판을 새겼는데, 일이 겨우 끝나자 兵火가 또 일어나니, 만일 두어 달만 지체했다라면 일이 뜻대로 안 되었을 것이다.⁵⁰⁾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강 정구는 많은 저술이 있었으나, 1592년 임진왜란과 1614년 집안의 화재로 많이 유실되어 문집으로 편성할 때는 수집해 둔 것이 과반이 채 되지도 않았다. 그런데 1636년에 문인 배상룡이 여러 동지들의 도움을 받아서 회연서원에서 간행하게 되었다. 병자호란[1636.음12.8. 발발]이 일어나기 직전에 문집의 판각을 마치게 되자, 동호가 매우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실무에 책임을 다한 등암 배상룡의 공을 빠뜨리지 않았다.

불초한 내가 일찍이 문하생이 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류로 돌아감을 면하게 된 것은 실로 선생의 교육의 은택을 입은 것이다. 산이 무너지고 대들보가 부러져서 막막히 의귀할 곳 없었던 지가 지금 18년이 되었는데 비로소 이 문집이 이루어졌음을 보고 옷깃을 바로하며 책을 들추어 보니 황연히 옛날의 기침소리를 친히 듣는 듯하였다. 나이 노쇠하고 병이 많아서 문필을 폐한지 오래라서 진실로 그 사실의 전말을 기록하는 데 부족함을 알면서도 다만 생각해보니, 오늘 기록하지 않는다면 백세 뒤에 무엇을 근거로 하여 선생의 저술한 바의 유실된 것이 과반이나

50) 李籟, 앞의 책, 권2, 「寒岡先生文集序」, “先生易簣之後, 門人等掇拾灰燼之餘, 蒐聚士友之藏, 辛勤十餘年, 編成略干卷帙, 而一時同事人, 相繼淪歿, 生而在世者, 亦緣精力不逮, 取舍不精, 勘校未完, 投之笥中, 以待具眼之編次, 不敢爲入梓計. 歲丙子秋, 門下生裴公尙龍甫謀諸同志曰, 時事多艱, 朝夕可虞, 而先生文集, 尙未行世, 與其不幸而莫之保焉, 曷若稍加讎校, 廣布于世, 以待後之君子耶, 遂竭誠盡力 繼以爲己任, 營役于檜淵書院, 多士雲集, 且校且刊, 功纔告訖, 而兵火又作, 若遲數月, 事不諧矣.”

되어 이제 여기 엮은 것도 정밀하지 못하고 엉성하여 완전하지 못한 줄을 알겠는가.⁵¹⁾

동호는 선생이 가르쳐준 은혜에 감사하며, 해수로 18년 만에 간행한 문집을 대하면서 ‘선생의 기침소리를 친히 듣는 듯하다’라고 감회를 적었다. 그리고 선생의 저술의 경우 과반이 유실된 사실과 문집의 勘校에 미진한 부분이 있고 소루하여 완전하지 못하다는 점을 후대에 알리기 위해 서문에 상세히 기록하였다. 문집 간행이 1636년 병자호란 직전이고 보면 문집 간행사업을 조금이라도 지체했다면 『한강집』이 후대에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었을까? 한편 생각하면 다행스런 일이다. 이로 인해 미수 허목이 1680년경에 초간본의 訛誤를 교정하고 편류를 考定하여 重刊本을 간행할 수 있었다.⁵²⁾

초간본을 간행하기 이전에 편성한 『寒岡先生文集』 稿本이 있었을 것이나, 현재 完本이 전해지지 않아서 권 책 수를 알지 못한다. 다만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에 零本 1책을 소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⁵³⁾

1636년에 간행된 『寒岡先生文集』 초간본은 전체 12권 5책으로 확인되는데,⁵⁴⁾ 이 초간본에서는 동호가 쓴 서문이 실려 있지 않다. 또 문인

51) 앞의 「寒岡先生文集序」, “余不肖早登門下, 以至今日, 得免下流之歸者, 實荷先生教育之恩也. 山頽樑折, 偃偃無歸今十八年, 始見斯集之成, 整襟披玩, 恍然若親承昔日之謦咳也. 年衰多病, 久廢文墨, 固知不足以記其事之顛末, 而第念今不識焉, 則百世之後, 何所據而知先生所述遺失者過半, 今此所編, 疎漏而不完也哉.”

52) 『寒岡先生文集』 중간본은 原集 15권, 別集 3권으로 편성하였다.

53) 鄭述, 『寒岡先生文集』(稿本)은 1636년 이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본 1책(권 15-17)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한강 鄭述가 徐思遠의 이름으로 代作한 「代徐行甫曾祖考通政大夫府君墓碣」[頭註에 ‘拔’ 표기], 「代徐行甫祖考處士徐府君墓碣」[頭註에 ‘O’ 표기], 「代徐行甫顯考進士徐公墓碣文」[頭註에 ‘拔’ 표기] 등 3편과 郭超의 이름으로 代作한 「代郭超祭南冥先生文」[頭註에 ‘刊’ 표기] 1편이 각각 『樂齋集』·『禮谷集』에 잘못 수록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서사원을 위해 대작한 글은 頭註 표기로 봐서 『寒岡先生文集』(초간본)에 등재되지 않았을 것이다. [장인진, 『영남문집의 출판과 문헌학적 양상』, 계명대출판부, 2011, 126쪽 참조]

54) 鄭述, 『寒岡先生文集』(초간본), 12권5책(서울대규장각, 奎1378). 板式은 “四周雙邊, 半郭 20.7×17.3cm, 有界, 12行22字, 上下花紋魚尾.”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 3권이 있다(동곡古3648-70-101). 권11 다음에 권12 없이 권13으로 편성되었다. 초간본

崔暉이 발문을 지었는데, 그 내용에 “선생 몰후 17년 만에 遺文을 모아 편차하여 간행하게 되었으며, 문생 등이 장현광에게는 서문을 자신에게는 발문을 부탁하였다.”⁵⁵⁾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초간본에는 최현의 발문이 실려 있지 않았고, 문생 등이 청탁했다는 여헌 장현광의 서문도 들어 있지 않다. 장현광의 서문의 경우 『旅軒集』에도 들어 있지 않았으니, 어떠한 내용인지 알 수 없고 저작 여부도 불분명 하다.

동호의 서문, 인재 최현의 발문, 여헌 장현광의 서문[문생 청탁] 등이 왜 실리지 않았는지? 현재 확인하기 어렵다.

2. 한강 예설 보완

동호가 편성한 한강선생의 예설은 선생과의 問目을 통해 알 수 있다. 문목과 관련해서는 1617년에 한강이 동호에게 답한 서신에서 감지된다.

그대의 편지를 읽어 보고, 지금 서원에 들어가 선현의 위패를 봉향하는 등의 일을 맡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 매우 위안이 되었네. 문목은 대강 내 소견대로 답을 써서 보내네. 다만 내가 단편적인 편지를 소략하게 써 보낸 것은 그대를 친애해서이고, 그대가 장문의 편지를 사람을 보내 직접 전해 온 것은 나를 존대해서일 것이네. 그러고서 더 나아가 그대가 나를 선생이라고 부른 것은 나를 소원히 대하지 아니겠는가. 소원히 대하는 것은 친애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은가.⁵⁶⁾

동호 이서가 川谷書院 원장을 맡고 있을 때 문목을 올린 것이다. 한강 정구는 선생과 제자 간의 관계를 친애[처조카]와 존대[선생]로 설정하고, 친애하는 것이 선생이라고 불러서 소원히 대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

에 대해서는 『寒岡集』(한국문집총간), 해제 편 참조.

55) 崔暉, 『訃齋集』(한국문집총간), 권11, 「寒岡先生文集跋」, “先生歿後十有七年, 而後學, 益切羹牆之慕 哀集遺文, 編次入梓. … 既請旅軒張先生序之, 而屬余以跋.”

56) 정구, 앞의 『한강집』, 권5, 「이이직에게 답함」. 이 편지는 1617년에 쓴 것으로, 성주 천곡서원의 원장으로 있던 이서가 임진왜란으로 중단했던 서원의 향사를 재개하려 하면서 스승에게 그에 관한 제반 절차를 묻고 원장을 그만두고 싶다고 한 편지에 대한 답장이다.

였다. 당시의 문목은 『한강집』에도 실려 있다.⁵⁷⁾

1) 일반 의례 문목

동호의 질의	한강선생 답변	비고
①부모의 大忌로 인한 正齋日에 절친한 친지 혹은 가까운 사이에 있는 벗의 부음을 들었을 때 자리를 정하여 곡을 하는 것은 매우 미안할 듯합니다. 제사를 마친 뒤에 자리를 정하여 곡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부음을 들은 날이 이미 지났으므로 곡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절친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이라면 마땅히 제사를 그만두고 달려가서 곡을 해야 할 것이고, 복은 없고 정이 깊으면 제사를 마치고 따로 자리를 정하여 곡을 해야 할 것이며, 정이 그다지 깊지 않고 부음을 들은 지 여러 날이 지났을 경우에는 굳이 뒤미처 곡할 것은 없네. 결국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는 것이네.	한강집 권6, 문답
②大忌 때 병이 깊어 제사에 참여하여 곡을 할 수 없다면 병을 조리하고 있는 곳에서 윗옷을 입고 곡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병으로 인하여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기력이 오히려 한 번 곡하는 정을 표시할 수 있는 정도라면 정갈한 옷을 입고 곡을 하는 것도 무방할 것이네.	한강집 권6, 문답
③무릇 신주 고쳐 쓰는 일[改題主]을 혹 시제나 기제로 인하여 하는 경우, 제사를 지내기 전에 고쳐야 합니까? 제사를 마친 뒤에 고쳐야 합니까? 그리고 축문에 그와 같은 내용을 넣어서 고해야 합니까?	시제로 인해 신주를 고쳐 쓴다면 시제를 지내기 하루 전에 술과 과일을 올리면서 사유를 고하고 신주를 고치거나, 혹은 따로 날짜를 잡아 제사를 행하고 그 사유를 고해야 할 것이네. 기제 때 신주를 고치는 것은 미안한 일이네.	한강집 권6, 문답
④아버지가 외삼촌의 후사가 되었을 경우, 아버지가 죽은 뒤에 그 신주를 본가의 사당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제사 지낼 곳을 설치하여 그곳에 안치해야 합니까?	마땅히 別祠를 마련해야 할 것이네. 두 성씨가 한 사당에 있는 것은 미안한 일이네.	한강집 권6, 문답
⑤아버지의 외삼촌은 자식에게는 사촌 대부가 되는데, <u>축문</u> 에는 무슨 <u>고</u> 라고 불러야 옳습니까?	<u>‘顯外從祖考’</u> 라고 해야 하네.	한강집 권6, 문답

57) 앞의 책, 권6 / 앞의 책, 「속집」, 권3 / 앞의 책, 「별집」, 권2.

⑥외조부모의 기제사 때 주인은 곡을 하고 외손은 혹 곡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곡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습니까?	외조의 기제사에 나 홀로 받들기도 하고, 혹은 여러 외사촌 형과 함께 제사를 지내기도 하는 데, 외사촌 형들이 곡을 하지 않으면 나 또한 곡을 하지 않을 것이나, 만일 여러 외삼촌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면서 외삼촌들이 곡을 하면 나 또한 곡을 하여 제사를 돕는 것이 무슨 상관이겠는가. 그러나 각 집안마다 행하는 법[家法]이 다르네. 우리 집에서는 내가 선친의 제사에 곡을 하면 그 자리에 있는 여러 자손들이 곡을 하여 슬픔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네.	한강집 권6, 문답
⑦문중에 거들 상사가 나서 반달이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 先墓에 제사지내는 것이 미안하지 않습니까? 백부의 묘[초상은 곧 백부의 며느리 초상]에도 미안함이 있는 것 같아서 행하지 않는데, 고조의 묘나 다른 산의 旁親의 묘 같은 데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례를 치르기 전에는 진실로 성묘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다만 吉祭에다 비할 것은 아니니, 한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다 묘사를 폐하겠는가. 만약 방친의 무덤에 그 일을 행한다면 어찌 백부의 무덤에만 폐할 수 있을 것이며, 더구나 조부의 묘와 고조부, 증조부의 묘는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초상이 다른 고을에서 났다면 더욱 완전히 폐하기는 어렵다고 보네.	한강집 권6, 문답
⑧사당에 부모의 신주만 있을 경우 기제를 사당에서 행하고 한 탁자에 함께 진설하여 제사를 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신주를 正堂[正寢]에서 받들고 나와서 考妣를 한 탁자에 함께 제사 지낸다는 것은 『가례』에 허용하는 바가 아니므로 감히 옳다고 말할 수 없네.	한강집, 속집, 권3, 문답 ※『동호집』에 미등재
⑨長子가 나이는 이미 장성했으나 장가들기 전에 죽었다면 그 신주를 사당에 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제사하는 장소를 따로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까?	장가들기 전에 죽었다면 성인이 아니므로, 殯禮를 적용하여 家廟에 붙여 두는 것이네.	한강집, 별집 권2에 등재

2) 천곡서원 충현사 중수 봉안시 문목

동호의 질의	한강전생 답변	비고
⑩正齋일에 위판을 쓰고 향사하는 날 봉안해야 합니까? 봉안하기 전에는 위판을 어디에 보관해야 합니까?	정재일에 위판을 쓰고 그 즉시 忠賢祠 각 位의 교의 위에 봉안했다가 밝아오는 새벽을 기다려 從祀하도록 하게.	한강집, 권6, 문답
⑪두 선생[程子·朱子]의 사당에 먼저 사유를 고하는 고유문은 없습니까? 만일 있다면 어느 날 고해야 합니까?	먼저 고하는 의식이 따로 없고 다만 봉안하는 축문의 끝에 간략하여 從祀하는 뜻이 들어있네. 그러나 이것도 처음 향사하는 날에만 고하고 그 뒤에는 아니하는 것이네.	한강집, 권6, 문답
⑫봉안하는 절차가 일반적인 향사 때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사당에 올라가서 제향을 마친 뒤에 원장이 諸生과 함께 친히 받드는 것입니까? 그리고 城主가 왔을 것 같으면 성주가 행하는 것입니까?	正廟의 향사를 마친 뒤에 초헌관이 제생을 인솔하고 충현사에 제향을 행하는 것도 무방할 것이네.	한강집, 권6, 문답
⑬위차는 連坐[並享]하는 것입니까? 만일 연좌를 양한다면 文烈公 자리는 北壁으로, 文忠公 자리는 東壁으로 합니까?	지난날 충현사의 위차는 연좌를 하였는데, 모두 북벽에서 남쪽을 향하였으며 서쪽이 뒷자리였네.	한강집, 권6, 문답
⑭위판의 粉面에 제서하기를 환헌당 선생의 위판과 같이 하고 쓰기는 문열공 이공과 문충공 이공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하네.	한강집, 권6, 문답
⑮성균관과 향교에서는 다 頭巾을 쓰고 上道의 서원 ⁵⁸⁾ 에서도 또한 다 두건을 쓴다고 하는 데 우리 서원에서만 程子冠으로 예를 행합니다. 근래에 서울의 관원으로서 우리 서원을 찾아온 분들이 혹 괴이하게 여겨서 묻기도 하고, 혹 비웃으며 깔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상도의 관례에 따라 유생은 두건을 쓰고 헌관은 갓[笠子]을 쓰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일찍이 金東岡(金字顯)과 당시의 여러 선배들이 상의하여 작정하였는데 그때는 별다른 이의가 없었네. 그런데 지금 그 당시 제현들은 세상을 떠나고 우매한 나만 혼자 남아서 비웃음을 당하고 있으니 참회한들 어찌하겠는가. 하지만 감히 제현들이 결정했던 일을 나 혼자 깨뜨릴 수 없네. 그러나 어찌 정해진 규정이 있겠는가. 그 일이 미안하고 유독 이상히 여기는 혐의가 있을 것 같으면 사림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을 때 함께 의논하여 고침으로써 바깥 사람들의 물의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네.	한강집, 권6, 문답

58) 정구, 앞의 『한강집』, 권6, 「李以直과의 문답」을 보면 上道書院을 도내의 각 서원으로 번역하였다.

이처럼 동호는 한강선생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전체 15조목이나 되는 變禮에 變禮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받았다.

일반 의례에 해당하는 ①-⑨의 문답 내용을 요약하면 父母 大忌의 정재일에 부음 받았을 때의 행동, 神主 改題의 방법, 외삼촌의 후사가 된 죽은 아버지의 신주를 사당에 들이는 문제. 축문에서 외족의 屬稱[관계 호칭],⁵⁹⁾ 장례 전 성묘, 사당에 신주가 있는 부모의 기제사 방법, 미혼 전에 죽은 만아들의 신주를 사당에 들이는 문제 등 9조목에 대해 질의를 하여 도표의 내용과 같이 선생의 답변을 받았다.

이서가 川谷書院 忠賢祠를 중수하고 봉안할 때의 ⑩-⑮의 문목을 보면 문열공 李兆年, 문충공 李仁復의 위패 봉안 시기, 봉안 시 正廟의 程子·朱子 神主에 事前 告由를 하는지 여부, 봉안 절차, 위패의 위치, 題書, 서원 유생의 頭巾 채택 문제 등 6조목을 질의하여 선생의 자세한 답변을 받았다. 답변 가운데 위패를 並享하는 경우 한강선생은 서쪽을 위라고 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⑮의 문목인데 비록 頭巾을 예로 들고 있지만 영남 上道⁶⁰⁾와 下道の 의례 차별성 즉 상도 우월성이 감지되고 있다. 천곡서원에서 程子冠⁶¹⁾을 쓰게 된 것은 한강이 동강 金宇顙, 그리고 선배들과 상의해서 결정했음에도 당시에 비웃음을 받았다. 이에 한강은 士林이 논의하여 고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었다.

한강이 젊었을 때는 程子·朱子를 제향하는 천곡서원의 의례를 정하는 과정에서 程子冠이라는 독자성을 고수하며 자부심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만년에는 젊었을 때의 시각을 약간 수정하여 전체에 따르려는 경향이 보인다. 한강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편찬한 「오선생예설」, 「오복

59) 『家禮』에 의하면 屬稱에서 屬은 高·曾·祖·考를 말하고, 稱은 官 혹은 號를 말한다.

60) 『光海君日記』, 2년 12월 29일 조에 “上道는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상도 북부 지방의 10개 고을”을 말하였고, 『영조실록』, 17년 1월 6일 조에 의하면 “영남의 풍속은 上道와 下道가 각각 달라서 세상에서 간혹 명분과 의리에 죄를 얻는 것으로 책망하기도 합니다.”라고 하였다.

61) 程子冠은 송나라 程頤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곡서원에서 정자관으로써 예를 행하는 것은 程頤를 祭享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혁도」 등 禮書를 후대에 꼭 전하고자 노력한 것은 이러한 士林의 분위기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앞의 한강선생이 「李以直箴에게 답함」에서 “선비의 기풍이 쇠퇴해진 정도가 막심하여 학문에 뜻을 둔 사람이 전혀 없네.”라는 대목을 보면 주변의 학문적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동호의 이러한 문목은 한편으로 낙동강 중류의 선비들에게 자극을 주게 되었을 것이고, 마침내 한강의 예학이 널리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목의 내용은 柳長源의 『常變通考』에 몇 조목 인용되어 있다.⁶²⁾

3. 남명 문묘 종사소

동호 이서가 봉산 옥행 당시의 활동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일을 수행한 것은 1617년 南冥 曹植을 文廟에 從祀할 것을 청하는 유립 상소에서 上疏文을 제출한 일이다. 상소문은 이서의 『동호집』에 실려 있다.

「남명 조식을 문묘에 종사할 것을 청한 상소」 상소문은 1,423자나 되는 장문이다. 그 일부를 본다.

우리 동방에 명인 석사로 칭할 만한 사람은 한둘이 아니지만 도학을 전하는 것으로는 듣지 못하다가 고려 말에 이르러 정몽주가 性理를 미루어 천명하고 경학을 창도하여 聖朝의 開運함에 이르러 문교가 크게 형통하여 유현의 선비가 울연히 일 어났습니다. 문경공 신 김굉필, 문헌공 신 정여창, 문정공 신 조광조, 문원공 신 이언적, 문순공 신 이황, 문정공 신 조식 같은 분은 다 일세에 뛰어난 현인으로서 서로 이어 뻗어나서 도학으로써 자임하여 전하지 못한 것을 전하고 후학을 깨우친 공이 자못 濂洛의 제현에 비길 만 합니다. 오직 이 六賢이 태어나기는 선후가 같지 아니함이 있으나 도학에는 피차에 다를 것이 없어 국가에서 의중하는 바나 후학들이 첨양하는 바가 또한 어찌 그 사이에 경중과 차이가 있겠습니까. 동일한 전례로 從祀하여 의당히 피차가 다름이 없어야 할 터인데 성조의 포양하고 존송하는 명이 다섯 신하에게는 이미 더해졌으나 조식에게만은 유독 꺾어져 송나라 楊時. 李侗의

62) 柳長源, 『常變通考』(목판본, 1830년)를 보면 권14의 상례 문상 편, 권25의 제례 기일 편과 묘제 편, 권27의 학교례 2조 등 총 5조목이 실려 있다.

일과 서로 같음을 면치 못하게 되니 성조의 欠典이요 사문의 불행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신들은 후세에서 오늘날을 보면 지금이 옛날을 보는 것과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것이 신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바입니다.⁶³⁾

동호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도학에 공이 있는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이황, 조식 등을 6賢으로 선정하여 칭송하며, 문묘에 從祀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였다. 그 가운데 5명은 이미 從祀되었는데 오직 조식이 빠지게 되니 사문의 불행이라고 하며, 중국의 楊時, 李侗의 고사를 예로 들면서 ‘후세에서 오늘날을 보면 지금이 옛날을 보는 것과 같아서 걱정됩니다.’라고 역설하였다.

대저 조식의 사람됨은 …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도 도학의 체를 묵묵히 깨달았고 학문은 반드시 육경과 사서로 근본을 하고 도학은 반드시 周子·程子·張子·朱子를 법도로 삼아 체험하고 실천하였으며 조심하는 데 적이 소홀할까 싶으면 성현의 遺像을 좌우에 걸어 놓고 성찰하였고 혹 게으름까 싶으면 敬義 두 자를 벽 위에 써놓고 힘쓰고 보고 살피 시종 빈 틈이 없었으며, 아는 것이 이미 精한 데도 더욱 정함을 구하고 행함에 이미 힘을 쓰기도 더욱 그 힘을 다하여서 문을 닫고 책을 펴면 정신이 모이고, 마음은 융통하여 學記篇이 그 책이고 神明舍가 그 銘이며, 천명·천도·조도·입덕의 그림에 이르러서는 또한 사람을 가르치고 학문을 하는 방법이 아닌 것이 없었으니, 그 斯文에 공이 있는 것이 실로 옛 진유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⁶⁴⁾

63) 李穡, 앞의 책, 권1, 「請從祀南冥曹先生疏」, “我東方, 名人碩士可稱者非一, 而道學之傳則未聞焉, 至於麗季鄭夢周, 推闡性理, 倡明經學, 逮夫聖朝開運, 文教大亨, 儒賢之士, 蔚然作興, 如文敬公臣金宏弼·文獻公臣鄭汝昌·文正公臣趙光祖·文元公臣李彥迪·文純公臣李滉·文貞公臣曹植, 俱以命世之賢, 相繼挺出, 以道自任, 其所以傳不傳覺後覺之功, 殆庶幾濂洛之諸賢矣. 茲惟六賢, 生有先後之不同, 而道無彼此之有異, 國家之所倚重, 後學之所瞻仰, 亦豈有輕重差異於其間哉, 從祀一典, 宜無彼此之殊, 而聖朝褒崇之命, 既加於五臣, 而獨闕於曹植, 不免與宋之楊時李侗之事相類, 寧不爲盛朝之虧典, 斯文之不幸哉, 臣等竊恐後之視今, 猶今之視昔也, 此臣等之所大懼也.”

64) 앞의 상소문 “夫曹植之爲人 … 不由師承而默契道體, 學必以六經四書爲本, 道必以周程張朱爲法, 反躬體驗, 腳踏實地, 恐操存之少忽也, 則揭聖賢遺像於座右, 慮省察之或怠也, 則書敬義二字於壁上, 臺臺觀省, 終始無間, 知之已精而益求其精, 行之已力而益致其力, 杜門開卷, 神會心融, 學記篇有其書, 神明舍有其銘, 至於天命天道造道入德之

그리고는 말미에서 “특별히 세상에 드문 眞儒로 하여금 문묘에서 제사를 받들게 하여 斯文을 부식하고 원기를 배양하게 하면 곧 士習은 바르게 되고 風俗은 순박하여 도는 그로써 엉기고, 나라는 그로써 높아질 것입니다.”⁶⁵⁾라고 하였다.

인용문에서 동호는 남명 조식의 행적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도학자로서의 자질을 역설하여 문묘에 종사되기를 소망하였다. 동호의 상소문에서는 전후의 맥락을 잘 짚어서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등 남명을 매우 존모한 사실을 살필 수 있다.

이 상소문이 『南冥從享疏文』[淨寫本]에는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문서를 살펴보면 진주 출신 河仁尙 등이 올린 「慶尙道儒生疏」와 「高靈疏」의 상소문이 실려 있는데 동일한 내용이다.⁶⁶⁾ 「고령소」의 말미에는 을묘년(1615) 3월 23일 上達⁶⁷⁾이라 하였고, 疏頭는 河仁尙이며, 소두 포함 169명의 명단이 실려 있다. 글을 검토해보면 동호의 상소문과 똑같은 내용이다. 동호가 고령의 상소문을 지은 것인가.⁶⁸⁾

동호의 상소문이 작성되기까지의 시·공간적 사실을 살펴보면 1617년 8월의 일로, 동호와 한강선생은 동래 온천장에 함께 있거나 귀로에 있던 시기였다. 따라서 석담 이윤우가 당시의 실상을 가장 가까이서 기록한 「봉산육행록」의 기록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

·8.6.(17일차) : 이서는 천곡서원의 享祀 일로 처음부터 먼저 돌아가고자 하여 8월 4일이나 5일 사이에 人馬가 이곳에 오기로 약속했으나, 도중에 물이 막혀 오늘[8월 6일] 저녁에야 人馬가 도착했다.

·8.7.(18일차) : 선생께서 이서가 서원[천곡서원]의 향사를 받들러 돌아갈 수 없게

圖, 亦無非教人爲學之方, 其有功於斯文, 實無愧於古之眞儒矣.”

65) 앞의 상소문, “特命間世之眞儒, 俾享文廟之苾芬, 以扶植斯文, 以培養元氣, 則士習正風俗淳, 道以之而凝, 國以之而尊.”

66) 『古文書集成』, 25, 「德川書院 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322-327쪽. 내용을 보면 「高靈疏」는 구체적인 「慶尙道儒生疏」는 중간부분의 일부가 생략되어 있다.

67) 『광해군일기』[정초본], 1615년 3월 23일 조를 보면 경상도 생원 河仁尙 등이 남명의 문묘 배향을 청한 상소를 올렸는데 상소문은 실려 있지 않다.

68) 「고령소」에 대해서는 뒷장 河愷의 「新安語錄」 부분에서 부연 설명하기로 한다.

되자 성주의 여러 벗에게 보내는 통문을 입으로 불러주었는데 만사를 제쳐놓고 향사에 참석하라는 내용이었다. 성주선비 張顯道가 大祭의 입제일에 사람을 보내어 문안하면서 “남명선생 문묘 종사의 일로 三嘉儒生 李賢佑 등 20여 명이 통문을 보내 이달 20일에 합천향교에 모여 상소문을 만들기로 했다고 하고, 李箚와 金知復으로 하여금 상소문을 짓게 하는 일로 사람을 시켜 통문을 보내왔으며, 성주에서는 李命龍이 상경할 것이라 합니다.”라고 하였다.

·9.2.(43일차) : 신안[성주]의 선비 10여 명이 상소 모임에 갔다가 아직 停擧⁶⁹⁾가 풀리지 않은 관계로 쫓겨나 돌아왔다고 하고, 대구 유생 楊洙⁷⁰⁾는 상소의 명단에 참여했다가 상소문의 말이 二賢[회재·퇴계]을 심하게 공격한다는 것을 늦게야 듣고 포기하고 돌아왔다고 한다.⁷¹⁾

위의 1617년 8월 7일의 기록을 보면 영남 일역의 유생들이 南冥을 文廟에 從祀할 것을 청하는 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從祀疏는 삼가 유생 이현우 등 20여 명이 발의하였고 李箚와 金知復으로 하여금 짓도록⁷²⁾ 한 것이다. 동호가 유림으로부터 製疏의 爬任錄에 든 것을 보면 그의 재능을 능히 인정받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다만 글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이 때 한강선생이 함께 있었기에 동호가 초안을 작성했을 것이고 한강은 감수 내지 교정을 하여 완성했을 것

69) 停擧는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한 유생에게 일정 기간 과거를 보지 못하게 하던 벌칙

70) 李潤雨, 『石潭先生文集』, 定稿本(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 古3428-631), 권7, 「봉산옥행록」 9월 4일 조를 보면 한강선생 행차가 금호강변의 小有亭에 이르렀을 때 경상감사 尹暄을 비롯하여 “孫處訥, 閔忠國, 李弘中, 盧克弘, 蔡楨, 崔東集, 崔東昱, 徐見龍, 楊洙, 洪達承, 趙咸章, 鄭天澍, 孫起業, 孫濩, 李宇樑 등이 앞에서 맞이해 뵈었다.”라고 하였다. 이들 대부분이 한강 문인임을 감안할 때 楊洙 또한 한강학과에 속한 인물이라고 하겠다.

71) 이윤우 저, 이세동 역, 『봉산옥행록』, 성주문화원, 2016, 49-50쪽, 80쪽.

72) 金知復, 『愚淵先生文集』(목활자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한古朝46-가1488)의 본문 및 부록의 家狀·墓碣銘을 보면 ‘남명 문묘 종사소’의 상소문을 지었다는 기록이 없다. 당시 유림에서 상소문을 짓도록 추천을 하였지만 참여하지 않았다고 본다. 김지복(1568-1635)은 호 愚淵, 본관은 永山인데 상주 출신이다. 柳成龍을 사사하였으며, 李堧·鄭經世 등과 학문적인 교류가 있었다. 1612년 생원시에 입격하고 1624년 문과에 급제한 후 掌令, 永川郡守, 密陽府使, 司藝 등을 역임하였다.

으로 짐작한다.

그해 8월 20일 선비들이 합천향교에 모여서 상소문을 만들기로 했다는 것은 상소문을 최종 확정한다는 뜻이다. 9월 2일자 를 보면 상소문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고 성주 선비 이명룡 등 10여 명이 상소 모임에 갔다가 정거가 풀리지 않아서 쫓겨나 돌아왔고, 대구 유생 양수는 상소문에 회재·퇴계를 심하게 공격한다는 말이 있음을 듣고서 포기하고 돌아왔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상소문이 합천 생원 柳震楨에 의해 조정에 올려졌다.

『광해군일기』 1617년 9월 10일 조를 보기로 한다.

합천 생원 柳震楨 등이 상소하여, 文貞公 曹植을 文廟에 從祀하기를 청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살펴보고 잘 알았다. 현인을 존경하는 그대들의 정성을 가상하게 여긴다. 마땅히 의논하여 처리할 것이니 그대들은 물러가서 글을 읽도록 하라.”라고 하였다.⁷³⁾

유진정은 정인홍의 생질이다.⁷⁴⁾ 『봉산욕행록』에서 말한 8-9월의 일, 합천향교에서 모여 상소문 만든 일, 疏頭로 선임된 유진정이 정인홍의 생질이라는 점, 유진정이 상소한 사실 등을 보면 합천의 선비들이 주도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그렇다면 회재·퇴계를 심하게 공격하는 내용을 누가 추가한 것일까? 합천 출신 정인홍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고 본다.⁷⁵⁾

『동호집』에 수록된 상소문을 『봉산욕행록』 중심으로 전후의 과정을 살펴해보았으나, 다른 견해가 있다. 滄洲 河愷(1563-1624)의 『新安語錄』

73) 『광해군일기』[중초본], 1617년 9월 10일 조. 같은 해 10월 25일 조에도 나옴. 이 부분에 대하여 앞의 『古文書集成』에는 유진정의 상소에 대한 언급이 없다.

74) 柳震楨(1563-1631)은 1618년 문과 급제하여 봉교에 이르렀는데, 인조반정으로 관직 削黜 당하였다.

75) 『광해군일기』, 1611년 3월 26일 조, 정인홍의 劄子에 ‘이언적과 이황을 비방하고 문묘 종사가 부당함을 극론함’ 및 같은 해 4월 8일 조, ‘동부승지 김상헌 등이 정인홍의 차자는 선현을 무함한 사특한 글이라고 아뢰’ 등으로 인하여 태학의 제생들이 靑衿錄에서 정인홍의 이름을 삭제하였다.

에 “만력 정사년(1617) 8월 남명선생 종사를 청하는 상소로 고령에서 疏의 모임을 가졌는데 모인 사람이 거의 수 백인이 되었으며, 정 선생이 상소문을 지은 것을 생질인 진사 이서의 명의로 대신 보냈다.”⁷⁶⁾라고 한 기록이다.⁷⁷⁾

이와 관련하여 河弘道(1593-1666)의 「선조 고현선생 사적 후서」를 보면 명확한 정보가 있다. 그는 이 글의 말미에 「附河滄洲題從祀疏及語錄後」라고 하여, 위에서 언급한 하징의 글을 부록으로 처리하고 주석을 달기를, “상소문은 한강 처질인 상사 이서가 지은 것”⁷⁸⁾이라고 하였다.

76) 河澄, 『滄州先生遺事』(목활자본, 1897), 권1, 「新安語錄」, “萬曆丁巳秋八月, 請南冥先生從祀疏會于高靈, 會者幾數百人, 鄭先生製疏, 代甥姪進士李箒名以送.”이라 하였다. 이어서 “小子忝擇疏, 遂用之, 因向新安上, 謁先生, 先生即令迎入引坐, 辭以病未能起居迎揖, 優禮以待, 溫言以接曰, 我先生從祀, 今始請疏, 然得請何可必也.”라고 하였다. 「봉산옥행록」을 보면 1617년 7.20.~9.5.에 한강은 봉산 옥행을 한 시기이고, 그 가운데 8.7~9.2.에는 남명 종사소와 관련하여 동호의 製疏 爬任부터 8월 20일 합천향교 모임, 楊洙의 上疏語 頗侵晦·退 지적 등이 나타난다. 그런데 하징은 이 해 8월에 고령에서 疏會와 擇疏, 신안[성주]의 한강선생 배알, 한강선생의 남명 종사소에 대한 언급 등을 기록하였다. 이로 보면 8월 20일 합천향교 모임을 전후하여 고령에서 한 차례 더 있었다고 이해된다. 그러나 앞의 『南冥從享疏文』[淨寫本]에서 보듯이, 하인상[진주 출신]의 상소가 1615년 3월 23일에 있었다. 상소문은 동호의 글과 똑같다. 같은 내용의 상소문을 고령 疏會에서 정했다면 169명의 명단에는 마땅히 한강·동호의 이름이 들어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고령소」 연명 169명 가운데 주도한 25명의 출신지를 보면 진주 5명, 합천·삼가 각 4명, 성주·의령·안음 각 2명이고, 고령은 1명뿐이다. 참고로 25명에 든 하징은 한강선생의 문인은 아니다. 전후 사정을 감안하면 상소문은 동호가 1617년 8월에 쓴 것이라고 본다.

77) 河澄은 앞의 책, 권1의 「書南冥從祀疏及新安語錄後」는 「新安語錄」의 연장선상의 논리라 하겠는데, 내용은 “제가 한강선생을 살펴볼 때 만년에는 식견이 더욱 높고 덕은 더욱 진전되었으므로 더욱 우리 선생을 존숭하는 것으로서 학기를 쓴 까닭이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 … 정사년[1617] 가을에 종사를 청하는 상소에서 말하기를, ‘뛰어난 자질에 기품이 드넓었네[氣宇恢廓].’라고 하였는데 恢廓 2자는 대개 오초려[吳澄]의 朱夫子贊의 말 가운데서 왔다[以愚觀於寒岡先生, 其於晚年, 所見益高, 德益進, 而益尊我先生者, 以學記書故也. 何以言之…及丁巳秋, 請從祀疏曰, 天資超邁, 氣宇恢廓, 恢廓二字, 蓋自吳草廬之贊朱夫子語中來.]”라고 하였다. 하징이 문묘종사 상소문을 한강의 글이라고 전제하고 인용구의 출처를 밝힌 것이다.

78) 河弘道, 『謙齋集』(1758년경 간행, 한국문집총간), 권9, 「書先祖苦軒先生事蹟後」의 「附河滄洲題從祀疏及語錄後」의 註에 “疏蓋寒岡妻姪李上舍公箒所製者,”라고 하였다.

또 「한강 선생이 바로잡은 남명 선생의 종사소 뒤에 쓰다」에서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동호의 이 상소문은 한강이 所正[바로잡은]한 글로 인식하고 있다.⁷⁹⁾ 상소문은 동호가 지었지만 한강이 바로잡은 글이라는 뜻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한강선생이 감수·교정하여 완성한 것을 하징이 한강의 글로 판단하지 않았을까 한다.

이를 제외한 여러 문헌을 조사해 보았으나, 한강선생이 상소문을 지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이 밖에 동호의 한강학과 활동을 살펴보면 「오선생예설」 편찬, 한강 「유사」 편찬, 한강 언행록 편찬 등이 있으나⁸⁰⁾ 한강학과 문인들의 공통 관심의 편찬이라고 하겠으므로 논외로 한다.

IV. 마무리 글

동호 이서는 한강선생의 문인 가운데서 주목되는 사람이다. 순후한 자질로 태어나서 일찍이 가르침을 받았고, 학문적 재능이 있어서 進士에 입격하고 遺逸로 천거되어 황산찰방에 잠시 재직하기도 했다. 스승이 권신의 배척을 받아 향리로 돌아가자, 그도 벼슬에 뜻을 버리고 성주에서 스승과 함께 학문을 강론하는 등 생애 대부분을 스승 곁에서 강학에 참여하였고, 한강 사후 31년을 더 살면서 선생의 업적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였다.

동호의 생애를 살펴보면 장년기인 1592년 금강산 유람을 들 수 있는데 빼어난 절경을 감상하고 심신 수련과 인격 도야하며 “잔루[물시계] 소리에 비로소 잘못을 깨달았듯이[殘漏聲中始覺非]”⁸¹⁾ 학문에 매진하고

79) 앞의 책, 권9, 「題寒岡先生所正南冥先生從祀疏後」, “愚於此文, 亦謂非點抹他人所製, 而盡出於先生之手也. …至於鋪敘我先生學問道德, 尤非他人所及, 非有德之言造道之論, 不可能也.”라 하고서는 한강선생이 문장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제목에 달았다.

80) 한강학연구원, 『한강학의 공간적 확장과 동호 이서』[주제발표집](2024.10.12.), 57-63쪽.

자 다짐했을 것이다. 만년에 승호 가에 집을 지어 동호야로라고 자호하고 후진 교육에 힘쓰고자 한 것은 이러한 청년기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하겠다. 또 동문의 벗 李堉의 「사우록」에서 “문하 제자의 어쭙 가운데서도 이보다 나은 사람이 없었고 덕량과 품모는 공에게 미치는 자가 없었다.”라고 언급함과 같이 한강의 고제자로서 사우 간에 위상이 높았다.

동호의 문집에 나타난 작품은 총 71편으로 확인되는데, 그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남명 조식의 문묘 종사를 청한 상소문이다, 그러나 46년 연하의 正峯 全有章에게 준 7言 59韻(826자)의 장편 시에 대해서는 詩語의 사용, 당시 정치적 상황, 가문의 전통, 문집의 간행년도 등을 검토한 결과 『동호집』 편집·간행 당시에 고증을 잘못했거나 추입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 『동호집』에 누락된 ‘동계 정온에게 한 제문’을 『동계집』에서 발견하여 가치를 분석하였다.

동호의 한강학과 활동에 대해서는 『한강선생문집』 간행, 한강선생 예설 보완, 남명 문묘 종사소 등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한강선생문집』은 1621년부터 동호 이서를 비롯하여 박명운, 최항경, 이천봉, 이육, 배상룡 등이 문집 교간의 일을 의논하여 정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 직전에 초간본이 나왔는데 당시 문인 가운데서 원로였던 동호 이서가 주도하고 배상룡이 실무를 주관하여 간행하였다. 문집간행 사업을 조금이라도 지체했다면 『한강집』이 후대에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었을 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 때 동호가 서문을 지었는데 초간본에는 들어 있지 않았고, 인재 최현이 지은 발문도 실리지 않았다. 한편 여현 장현광에게 서문을 요청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한강선생 문집에 서문이 없다. 간행 시 어떠한 연유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강선생 예설 보완에 대해서는 동호가 한강선생에게 올린 문목 15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반 의례의 경우 사당과 관련 있는 것이 많았고, 천곡서원 충현사 위패 봉안에 대한 문목에서는 위패의 봉안 절차 외에 頭巾 채택이 과제였다. 천곡서원에서는 程子冠을 쓰고 예를 행하였

81) 李籟, 앞의 책, 권1, 「妙杏菴曉起口占」에서 “塵念如今擺脫盡, 丁夢魂何事故飛, 丁寧細語仙間事, 殘漏聲中始覺非.”라고 하였다.

는데 세간에 논란이 되었다. 성균관·향교와 영남 上道の 서원에서 頭巾을 썼던 것이다. 이 대목에서 上道·下道の 의례 차별성이 감지되는데, 한강은 전체에 따르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다.

동호는 1617년 7월 20일 한강선생을 모시고 봉산욕행에 참여하여 9월 5일 까지 선생을 따랐다. 『봉산욕행록』을 보면 동호에 대한 기록이 20회 나타난다. 그해 8월에 발의 된 남명의 文廟 從祀疏에서는 동호가 상소문을 지었다. 그는 성리학자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이황, 조식 등을 6賢[현인]으로 인식하고, 5현은 이미 문묘에 종사하였는데 남명이 빠진 것을 아쉽게 여겼다. 한강 정구가 젊은 시절에 남명 조식으로 부터 敬과 義에 관한 가르침을 깊이 새겨듣고 실천하는 모습을 그가 평소애 지켜보았다. 동호가 상소문을 작성할 때 이러한 점을 주목했을 것이지만, 글 가운데 한강선생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어서 한강이 바로잡아서 완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끝으로 남명 문묘 종사소와 관련하여 하징의 글을 보면 1617년 8월에 남명선생 종사를 청하는 상소로 고령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거의 수백인이 모였고 한강을 배알했다고 하였다. 1617년 8월은 한강이 봉산욕행 중이었고 합천향교 疏會가 있었는데 이 때 製疏를 맡은 동호가 지은 것으로 보았다. 『南冥從享疏文』[淨寫本]에 실린 「高靈疏」는 1615년 3월 23일 河仁尙이 상소할 때 169명의 연명으로 올린 것인데, 동호의 상소문과 내용이 같다. 동호가 이 때 지었다면 한강과 동호의 이름이 그 명단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부분은 과제로 남겨둔다.

※ 이 논문은 2024년 10월 29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12월 0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12월 17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郭起, 『禮谷先生文集』, 목판본(181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한古朝46-가95), 「八溪日記」.
- 金知復, 愚淵先生文集, 목활자본(1937,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한古朝46-가1488), 2권1책.
- 柳長源, 『常變通考』, 목판본(1830), 권14 상례, 권25 제례, 권27 학교례 등.
- 朴而章, 『龍潭集』(한국문집총간), 권5, 「年譜」.
- 裴尙龍, 『藤庵集』(한국문집총간), 권수, 「年譜」 및 권2, 「答李東湖」.
- 李萬運, 『默軒集』(한국문집총간), 권6, 「寒岡先生文集開刊事實」.
- 李命禧 등편, 『光山李氏族譜』, 목활자본(1856), 권수.
- 李籟, 『東湖集』(한국문집총간), 3권1책.
- 李裕元 편, 『林下筆記』(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권33, 「華東玉糝編」.
- 李潤雨, 『石潭先生文集』, 定稿本(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 古3428-631), 「蓬山浴行錄」.
- 李潤雨, 『石潭集』(한국문집총간), 「實記」.
- 李滉, 『退溪集』(한국문집총간), 卷2, 「觀朱子大全書 亟稱陸放翁之爲人 云云」.
- 張顯光, 『旅軒續集』(한국문집총간), 권2, 「答李以直」.
- 全有章, 『正峯先生文集』, 목활자본(達城, 悅樂亭, 1935), 권2, 附錄, 「正峯先生年譜」.
- 鄭述, 『한강집』(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문집, 속집, 별집, 연보, 언행록.
- 鄭述, 『寒岡先生文集』, 稿本(1636년 이전, 계명대동산도서관 소장), 1책(권 15-17).
- 鄭述, 『寒岡先生文集』, 목판본(초간본, 1636, 서울대규장각 소장, 奎1378), 12권5책.
- 鄭蘊, 『桐溪集』(한국문집총간), 「續集」, 권2, 「士林祭文」.
- 鄭宗魯, 『立齋集』(한국문집총간), 권28, 「東湖集序」. 권35, 「副護軍東湖李公墓碣銘」.
- 『昌寧縣邑誌』, 필사본(순조연간, 서울대규장각 소장, 奎666-v.19), 「人物, 寓居」條.
- 崔漢綺, 『氣測體義』(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권5, 「推己測人」.
- 崔峴, 『訥齋集』(한국문집총간), 권11, 「寒岡先生文集跋」.
- 河愷, 『滄州先生遺事』, 목활자본(1897), 권1, 「新安語錄」 및 「書南冥從祀疏及新安語錄後」.

河弘道, 『謙齋集』(1758년경 간행, 한국문집총간), 권9, 「附河滄洲題從祀疏及語錄後」.
『寒岡先生言行錄』, 목판본(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古2516-54-1-2).

『古文書集成』, 25, 「德川書院 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322-327쪽.

이서 저, 이일영 편역, 『國譯東湖先生文集』, 광문인쇄사, 1988, 1책.

이운우 저, 이세동 역, 『봉산육행록』, 성주문화원, 2016.

장인진, 『영남문집의 출판과 문헌학적 양상』, 계명대출판부, 2011.

정우락 외, 『강안학이란 무엇인가』, 도서출판 역락, 2023.

『中文大辭典』,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5, 經院 조.

홍원식 외, 『조선 후기 낙중학의 전개와 한려학파』, 계명대학교출판부, 2018.

홍원식 외, 『조선 중기의 낙중학, 한강 정구의 삶과 사상』, 계명대학교출판부,
2017.

장인진, 「석담 이운우의 한강학과 기반 조성」, 『영남학』 제84호, 경북대학교 영남
문화연구원, 2023, 239-289쪽.

한강학연구원 편, 『한강학과 석담 이운우』[주제발표집](2022.11.26.).

한강학연구원, 『한강학의 공간적 확장과 동호 이서』[주제발표집](2024.10.12.).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The Life of Dongho Seo Lee and His Activities in Hanganghakpa

Chang, In-jin

Dongho(東湖) Seo Lee(李籥, 1566-1651) is one of the most noteworthy figures among other literati under Hangang(寒岡) Gu Jeong(鄭逵). Lee lived for another 31 years after the death of Gu Jeong, who taught him as a master, and contributed to producing his master's legacy.

A total of 71 works have been identified in Dongho's collection, and one of the most notable works is Sangsomun(上疏文) for Munmyo(文廟) Jongsu(從祀) of Nammyung(南冥) Sik Jo(曹植). Regarding the long poem Lee gave to Yujang Jeon(全有章), who was 46 years younger than him, however, this study determined that it was either wrongly cited or added at the time of the compilation and publication of "Donghojip"(東湖集) upon reviewing the use of poetry language, the political situation at the time, the family tradition, and the publication year of the collection. Moreover, this study found the Eulogy for Donggye(桐溪) On Jeong(鄭蘊), which was missing in "Donghojip", in "Donggyejip"(桐溪集) and analyzed its value.

This study has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rom Dongho's activities in Hanganghakpa(寒岡學派):

"Hangangjip"(寒岡集) for Gu Jeong was determined in 1621 after Seo Lee, Myeongyoon Park, Cheonbong Lee, and Sangryong Bae discussed the publication of the collection. In 1636, the first edition of the collection was published just before the Byeongja Horan (Qing invasion

of Joseon), and it was led by Seo Lee, who was the elder member among other literati at the time, while Sangryong Bae took care of practical tasks for its publication. If there had been any delay in publishing the collection, “Hangangjip” may not have remained intact and been passed down to future generations.

Regarding Hangang’s supplementation for Yeseol(禮說), this study focused on the questions Seo Lee asked his master Hangang. For regular rituals, many of his questions were related to sadang (shrine). Regarding the question about enshrining an ancestral table in Cheongok Confucian Academy(川谷書院) Chunghyeonsa(忠賢祠), it concerned the use of doogeon (head covering) during a ritual. Cheongok Confucian Academy used jeongjagwan(程子冠), which became controversial. By contrast, Sungkyunkwan, Hyanggyo, and Confucian Academy in Yeongnam Sangdo(上道) used doogeon. This question shows some ritual differentiation between Sangdo and Hado(下道).

On July 20, 1617, Seo Lee took part in Bongsan Yokhaeng [bathing procession] with his master Hangang and followed him until September 5. “Bongsanyokhengrok”(蓬山浴行錄) mentions Seo Lee 20 times. Considering that he held the important position of Jikil(直日) as many as five times, it suggests that he was a very honest man.

In Sangsomun for Munmyo Jongsang of Nammyung Sik Jo, which was proposed in August of the same year, Seo Lee recognized Neo-Confucianists Gyeongpil Kim, Yeochang Jeong, Kwangjo Jo, Eonjeok Lee, Hwang Lee, and Sik Jo as six wise men, and lamented that Sik Jo was omitted while the other five wise men were already enshrined in Munmyo Jongsang. As he saw Gu Jeong deeply learn and practice teachings about Gyeong(敬) (reverence) and Ui(義) (righteousness) from Sik Jo when he was young, he devoted himself even more to this sangsomun.

Dongho Seo Lee carried out tasks for a good cause as Hangang's apprentice and contributed greatly to disseminating Hangang's achievements to future generations.

keywords :

Gu Jeong, Hangangjip, Donghojip, Donggyejip, Hanganghakpa, Sangsomun, Munmyo, Nammyung, Sik Jo, On Jeong